

한국 반 학습 계획

일시: 2020년 3월 28일

교사: 김소희

교재: 한국어 8

교시	수업내용
1교시 9:30~10:00	-지난 주 단어 복습 -사자성어 복습 세옹지마/함흥차사/칠전팔기/동문서답/대기만성/일석이조
2교시 10:05~11:00	- 한자어 속담 (백문이불여일견/오비이락/정중지와)
3교시 11:05~11:40	1. 한국인의 여가 생활 (문형/문법:~기에 좋다, ~기에 ~하다) (발음과 표기: 저리다/절이다, 다리다/달이다) 2. 한국어 8. 126쪽 읽기 -새 단어: 여가, 전문적, 증진시키다, 계층, 지략, 보급되다, 겸하다, 공동체, 동호회, 실외/실내, 서민(상민)/양반
4교시 11:45~12:20	-양란(임진왜란/병자호란)의 이후, 조선후기의 변화
	<p>학생은 위에 표시된 3월 28일자 숙제와 답안지 확인 및 채점을 모두 마쳤습니다.</p> <p>부모님 확인 서명: _____</p>

한국 반	한자	숙제(한자의 뜻과 음을 쓰세요.)
------	----	--------------------

井	中	之	蛙
우물 정	가운데 중	어조사 지	개구리 와

百	聞	이	不	如	一	見
백 백	듣다 문		아닐 불	같을 여	하나 일	보다 견

烏	飛	梨	落
까마귀 오	날다 비	배나무 리(이)	떨어지다 락 (낙)

한국 반	발음과 표기	숙제
------	--------	----

저리다: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활용→ 저리다/저린다/저렸다/저려서/저리니까...

절이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 따위의 숨을 죽이려고 소금을 뿌려 애벌로 절이다.

활용→ 절이다/절인다/절였다/절여서/절이니까/절이려고...

1. 바닥에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려요/ 절여요).
2. 배추를 (저렸더니/ 절였더니) 양이 확 줄었어요.
3. 컴퓨터 게임하느라 마우스를 너무 썼더니 손이 (저려요/ 절여요).
4. 고등어를 소금에 (저려/ 절여) 고등어 자반을 만들었어요.

조리다: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

줄이다: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 하다.

1. 저는 튀긴 감자보다 (조린/ 줄인) 감자를 더 좋아해요.
2. 오디션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 마음 (조리며/ 줄이며) 기다렸다.

다리다: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로 문지르다.

달이다: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

1. 저는 티셔츠도 꼭 (다려서/ 달여서) 입어요.
2. 생강과 개피를 오래 (다려서/ 달여서) 마시면 감기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 짧은 글짓기

1. 절였다: **오이지를 담으려고 오이를 소금에 절였다.**

2. 줄였다: **거짓말이 들킬까 봐 마음을 줄였다.**

3. 다렸다: **구겨진 바지를 뽀뽀하게 다렸다.**

한국 반	문형. 문법	숙제
------	--------	----

● 다음 문장을 '-기에'를 넣어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1. 이 과자가 맛있어 보인다. 사 왔다.

- 이 과자가 맛있어 보이기에 사 왔다.

2. 여자 친구가 생각났다. 장미꽃을 샀다.

- 여자 친구가 생각나기에 장미꽃을 샀다.

3. 친구가 글짓기 대회에 나간다. 잘 하라고 엿을 사줬다.

- 친구가 글짓기 대회에 나간다가에 엿을 사줬다.

4. 그 제과점에 빵이 맛있어 보인다. 가족들을 주려고 샀다.

- 그 제과점 빵이 맛있어 보이기에 가족들을 주려고 샀다.

5. 엄마와 아빠께서 산책을 가신다. 나도 따라 나섰다.

- 엄마와 아빠께서 산책을 가신다가에 나도 따라 나섰다.

● 다음에 오는 질문에 '~기에 좋아요'를 넣어 답하세요.

1) 가: 왜 그 편의점에 자주 가세요?

나: 가까워서 가기에 좋아요.

2) 가: 네 모자가 아주 멋지다. 쓰기에 어떠니?

나: 천이 부드러워서 쓰기에 좋아요.

3) 가: 그 공원 어때? (여러 가지 운동 기구가 있어서, 운동하다)

나:여러가지 운동기구가 있어서 운동하기에 좋아요.

4) 가: 그 식당은 어떠니?

나: 넓어서 단체모임하기에 좋아요.

5) 가: 이 소설을 학생들이 좋아하네요?

나: 단어가 쉬워서 학생들이 읽기에 좋아요.

6) 가: 그 공원은 어때?

나: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 타기에 좋아요.

● 짧은 글짓기

<보기>와 같아 각 내용에 '~기에'를 사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 봅시다.

내용	짧은 글짓기
<보기> 우리 차	우리 차는 우리 네 가족이 <u>타기에</u> 충분히 넓습니다.
내 방	내 방은 친구가 와서 자고 <u>가기에</u> 좁습니다.
Wii, 선물하기	Wii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u>선물하기에</u> 좋아요.
도서관	저희 동네 도서관은 스터디 룸이 있어 <u>공부하기에</u> 좋습니다.
운동장	운동장에 잔디가 좋아 <u>축구하기에</u> 좋습니다.
Ipad, 가볍다	Ipad는 가벼워서 들고다나기에 <u>좋아요</u> .
엄마, 시장에 가시다	엄마가 시장에 <u>가신다기에</u> 나도 따라가 봤다.
시장 음식, 싸고 맛있다	시장 음식이 싸고 <u>맛있다기에</u> 나도 가 봤다.
여행, 힘들다	배낭 여행이 <u>힘들다기에</u> 그냥 패키지 여행으로 예약했어요.
백화점, 세일을 하다	백화점에서 세일을 <u>한다기에</u> 가서 바지를 샀다.
NE 글짓기 대회, 참가하다	친구가 NE 글짓기 대회에 <u>참가한다기에</u> 응원을 해줬다.
친구 콘서트, 가 보다	친구가 처음으로 피아노 콘서트를 <u>한다기에</u> 가 봤다.

한국 반	받아쓰기	숙제
------	------	----

1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려요.
2	김치를 담으려고 배추를 절여요.
3	늦게까지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아 마음을 졸였어요.
4	생선과 무를 넣고 조렸어요.
5	옷을 다리니까 깨끗해 졌어요.
6	한약을 오랫동안 달였어요.

새끼 위한 어미 뺨꾸기의 생존 전략 '탁란'



<그림-1> 뺨꾸기의 탁란 기생을 당한 붉은머리오목눈이가 자기보다 큰 뺨꾸기 새끼에 벌레를 먹이고 있다.

“뚝뚝 뚝뚝새 논에서 울고/ 뺨꼭 뺨꼭 뺨꼭새 숲에서 울 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한 동요 ‘오빠 생각’의 첫 노랫말이에요. 봄부터 여름까지 산과 들에서 울어대는 뺨꾸기는 이름도 익숙하고 ‘뺨꼭 뺨꼭~’하는 특유의 울음소리도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뺨꾸기가 둥지를 틀지 않고 스스로 알을 품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뺨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아요. 이처럼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 제 새끼를 대신 키우게 하는 걸 ‘탁란’이라고 해요. 탁란을 하는 새들은 자신의 알과 비슷한 모양과 색깔을 가진 알을 낳는 새를 찾아 나서요. 뱀새 · 솔새 · 딱새 등

대개 몸집이 작은 새들을 대상으로 해요. 빼꾸기 알이 상대적으로 부화가 빠르고, 알에서 깨어난 새끼가 원래 동지의 주인인 다른 새를 동지 밖으로 밀어내고 먹이를 독차지하기 위해서지요.

최근 강릉의 한 농가에서 빼꾸기 알을 품는 딱새 부부가 발견됐어요. 빼꾸기가 몰래 딱새 동지에 알을 낳고 간 것을 모르는 딱새 부부는 부화한 빼꾸기 새끼를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웠어요. 엄청난 먹성을 자랑하는 빼꾸기 새끼가 자꾸만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탓에 딱새 부부는 먹이를 물어다 주느라 쉴 틈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보름이 지나자 빼꾸기 새끼는 어미 딱새보다 몸집이 3~4 배나 크게 자랐어요. 그리고 지난 19 일 어미가 사냥을 나간 사이 빼꾸기는 동지를 박차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빼꾸기가 너무 양체같다고요? 하지만 탁란도 새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어미 빼꾸기의 생존 전략이랍니다. 어미는 새끼가 다 자랄 때까지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본답니다.

소리 내어 읽기	시작 시간		끝난 시간	
	7시	10 분	7시	25 분

‘새끼를 위한 어미 뱀구기의 생존 전략, 탁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답은 본문 중에 있습니다.)

1.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 제 새끼를 대신 키우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탁란

2. 탁란을 하는 새들은 자신의 알과 비슷한 모양과 색깔을 가진 알을 낳는 새를 찾거나 대개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새들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뱀구기 알이 상대적으로 부화가 빠르고, 알에서 깨어난 새끼가 원래 둥지의 주인인 다른 새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먹이를 독차지하기 위해서지요.

3. 얼마전 강릉에서 딱새 부부가 뱀구기 새끼에게 쉬지 않고 밤낮으로 먹이를 물어다 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딱새 부부는 뱀구기가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윗 글의 내용과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4. 뱀구기가 탁란을 하는 것은 알미운 성격때문이다. X

5. 뱀구기가 탁락을 하는 것은 뱀구기의 생존전략이다. O

6. <그림-1> 뱀구기의 탁란 기생을 당한 붉은머리오목눈이가 자기보다 큰 뱀구기 새끼에 벌레를 먹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써 보세요.

붉은머리오목눈이가 자기보다 몸집이 몇 배나 더 큰 뱀구기를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 아침부터 얼마나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날랐을까?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자신이 작다는 것, 자기 새끼라고 알고 있는 뱀구기가 자기보다 크든 작든, 새끼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어미의 본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